

채용을 위한 국어 시험의 현황과 개선 방안

양명희*

〈차 례〉

- I. 채용을 위한 국어 시험
- II. 공무원 임용 시험의 국어
 - 1. 6·7급, 8·9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
 - 2. 공직적격성 시험(PSAT)의 언어 논리
- III. 방송사 및 신문사의 국어 시험
 - 1. 방송사의 국어 시험
 - 2. 신문사의 국어 시험
- IV. 삼성 직무 적성 검사의 언어 영역
- V. 맺음말

I. 채용을 위한 국어 시험

그동안 국어교육학계나 국어국문학계에서는 채용과 관련한 국어 시험에 그다지 높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 그리고 대학 입학시험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주 원인이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사회에서 국어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별 도전 없이 그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채용과 관련한 국어 시험에 대한 평가학적 논의나 그 중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별 논의가 없어 왔던 것이 이제까지의 현실이다.

*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그러나 이런 학계의 안이한 태도 속에 2001년 공무원 시험 과목 중 국어 과목의 폐지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글학회 등 국어 관련 단체의 거센 반발에 한 걸음 물러서기는 했지만 경찰청 주관의 공무원 시험에서는 국어 과목이 폐지되었다. 반면 행정자치부 주관의 고시(외무, 행정, 기술)에서는 2001년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임용 시험 개선안에 따라 1차 시험으로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영역이 2004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¹⁾

7급이나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국어 과목 폐지 움직임이 나타난 반면 5급 고시 시험에는 새로이 언어 논리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등장하게 된 것은 언뜻 보면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서로 어긋난 입장이라 하기 어렵다. 즉 7급이나 9급 시험에서 국어 과목 폐지 움직임이 나온 것은 그동안 치러졌던 시험이 제대로 된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여하지 못해 생겨난 결과이며, 5급 시험에서 언어 논리 영역을 새로 도입하게 된 것은 언어 영역의 중요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KBS에서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어능력 인증시험도 마찬가지이다. 지식 기반 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실 국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세계화의 기치 아래 온 국민이 영어를 배우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두개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기 위하여 국어의 중요성이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 등장하게 된 것이 현재 재단법인언어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고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후원하고 있는 '국어능력 인증시험'이다. 성적별로 각 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국어능력 인증시험은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도구로서 개발되어 각종 채용 시험에서 자격 시험으로 자리잡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바로 KBS의 국어능력 인증시험이다.

1) 고시의 1차 시험 과목은 헌법, 영어, 한국사였다.

채용과 관련한 국어 시험은 정부와 방송사, 신문사 등의 언론사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도 치러진다. 언론사에서 국어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것은 언론이 말과 글을 매개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또 일류 기업이라 일컬어지는 삼성의 직무적성검사 시험에 국어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 역시 눈여겨 볼 만하다.

본고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채용을 위한 국어 시험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시험이 국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국민들의 대부분이 국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시험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데에서 시작할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의심은 대다수 국어 전공자들의 나태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II. 공무원 임용시험의 국어²⁾

주관 부서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대부분 5급 시험에는 국어 과목이 없고, 7, 9급 임용 시험에는 국어 과목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01년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임용시험 개선안에 따라 행정자치부 주관의 고시(외무, 행정, 기술고시, 지방고시)에 2004년부터 1차 시험으로 언어논리 영역이 도입되었다.³⁾ 7급과 9급의 국어 과목은 2001년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 한동안 사회를 시끄럽게 했는데 경찰청 외에 행정자치부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국어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폐지 움직임이 나타난 7급, 9급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시

2)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시험은 41회 7급 시험, 45회 9급 시험, 9회 지방 공무원 시험, 37회 외무고시, 39회 기술고시, 47회 행정고시 등이다. 사법 고시는 법무부 주관으로 45회째이다.

3) 2005년부터 치러지는 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의 1차 과목으로 정해진 PSAT의 언어논리 영역의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6·7급, 8·9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

1) 현황

6·7급, 8·9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국어 과목에 출제되는 문제는 4지 선택형 20문제이다. 20문제로 국어 능력을 측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지는 하지만 시험의 편이성과 또 변별성에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국어 시험이 치러져 왔다.

현재 치러지고 있는 공무원 국어 시험은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맞물려 있는 양상을 띤다. 이것은 현재 7, 9급 공무원 시험이 오랫동안 고졸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 배운 국어 실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된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2000년 이전의 국어 문제는 대부분 단답형의 암기식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⁴⁾ 일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국어 과목 폐지는 국어 시험 문제가 고졸자를 대상으로 했던 학력고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실패한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양명희 2002: 1~3).

이와 같은 인식을 한 행정자치부는 2002년 국어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4지 선택형 20문항의 편장을 종래의 틀에서 변경하였다. 그 결과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사와 고전 문학 영역이 폐지되었고, 언어 영역에서 어문 규범, 올바른 문장 쓰기 등의 영역이 강화되고(20% 차지), 국어사, 음운론과 같은 국어학적 지식을 묻는 영역은 폐지되었다. 또한 표

4) 1981년부터 시작된 4차 교육과정은 학문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 위주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1994년부터 실시된 수능은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 6차 교육과정(1992년 시작)에 따라 지식보다는 이해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현과 이해와 관련한 읽기/쓰기 문항은 문학 지문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지문을 통해 일반적인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한문은 학자에 따라 존재의 논의가 엇갈렸으나 현재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과 수준의 한문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져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편장으로 국어 시험이 개편되었다.

■ 7. 9급 공무원 시험의 편장 변화

7급:

문학 일반 이론 10%

현대문 20%

고문 20%

국문법 10%

국문학사 10%

한문·한자 20%

국어 상식 10%

9급:

문학의 이해와 감상 25%

독해(논설·설명) 35%

국어의 이해(문법) 20%

쓰기(작문) 20%

이제까지는 주로 단편 지식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으나 2003년부터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탐구형 문항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문학과 문법 영역은 정적 지식을 묻기보다 지문을 통해 이해 여부를 묻는 수행적 문항으로 개선되었다. 그리고 한 문항으로 지식과 이해 능력을 같이 평가하는 복합적 문항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자성어를 묻는 문제도 지문을 이해한 후 그 지문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고르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어문 규범과 문장력을 측정하는 문

향은 실용 국어의 문제로, 국어 시험이 실용으로 물리는 데 경계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의 생산해 내는 공문, 계획서, 법령 등 각종 문서를 생각할 때 꼭 필요한 국어 지식으로 판단된다.

2) 문제점

2002년 행정자치부의 자체적인 개선안 마련으로 현재 7, 9급 공무원 국어 시험은 국어 지식, 이해, 표현 등 국어 능력의 기본을 묻는 출제 영역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고전문학, 문학사의 제외로 나타나는, 우리 문학에 대한 지식 경시와 문학 감상 능력 평가에 대한 소홀함이 문학교육학자들에 의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영역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학 감상 능력이 공무원들이 지녀야 하는 기본 소양임을 설득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교육 과정이 단편적 지식보다는 창조적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출제 영역의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어 시험은 출제 영역이나 문제 유형의 개선으로 수험자들에게 환영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국어 시험의 내용이 공무에 필요한 국어 지식을 묻거나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국어 능력을 묻는 데 부족한 점을 많이 갖고 있다.

공무원 채용 시험의 국어 문항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단순히 국어 지식을 묻거나 단순 암기 문제이거나 국어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을 묻는 문항은 좋은 문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문제는행식으로 출제된 문제들은 평가를 위한 문제라기보다 '쉽게 출제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규정될 수 있다. 다음 문제를 보면 위와 같이 규정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 소설의 구성 방식 중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는 구성 방식

은?(1994. 서울시)

- ① 옴니버스식 구성 ② 복합 구성
 ③ 피카레스크식 구성 *④ 액자식 구성

<문> 개화기의 의사로서 언론 정책에 크게 관심 있던 분의 이름과 그의 저술이 바르게 된 것은?(1986. 국회 7급)

- ① 이능화의 「조선 불교 통사」 ② 유길준의 「서유견문」
 *③ 지식영의 「신정국문」 ④ 최광옥의 「대한문진」
 ⑤ 주시경의 「대한 국어 문법」

<문> 백수광부가 강에 뛰어 들어 죽은 것을 보고 그의 아내가 역시 뛰어 들어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여옥이 지었다는 노래는 어느 것인가?(2000. 9. 3.)

- *① 공후인 ② 황조가 ③ 구지가 ④ 해가

<문> 다음 노래의 출전은?(1991. 서울시 7급)

둘하 노피곰 도드샤,1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저재 녀러신고요.
 어기야, 즈 드 | 룰 드드 | 율세라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그야, 내 가논 드 | 점그룰세라. (후렴구 생략)

- *① 약학체법 ② 약장가사 ③ 삼국사기
 ④ 삼국유사 ⑤ 시용향약보

<문> 다음에서 '내훈(內訓)'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1991. 총무처)

- ① 내훈은 덕종비 소혜왕후가 부녀 훈육을 위하여 간행한 것이다.
 ② 내훈의 초간본은 성종 때 나온 것이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③ 내훈은 「소학」, 「열녀」, 「여교」, 「명감」의 네 책에서 뽑았다.
 ④ 내훈은 언행장, 효친장, 혼례장, 부부장, 무의장, 돈목장, 염검장 등의 7장으로 되어 있다.
 *⑤ 내훈의 이본으로 광해군 때 나온 판본은 '어제내훈'이라 불렀다.

위와 같은 단순 암기식의 문제는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거나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소양을 기르거나 실제 업무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어 시험의 타당성 전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출제 영역과 관련하여 수험자의 부담이 너무 과도할 뿐 아니라 그러한 수험 준비가 국어 생활에도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여 수험생들이나 시험 주관 기관으로부터 국어 시험이 공무원에게 필요한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3) 개선 방안

공무원 국어 시험의 개선은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출제 영역 선정, 둘째는 수준 높은 능력을 물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의 다양화, 셋째는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4지 선택형 20문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험의 개발이다.

공무원 국어 시험에는 공무원의 업무에 필요한 국어 영역과 공무원이 지녀야 할 소양으로서의 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출제되어야 한다.⁵⁾ 공무원의 업무에 필요한 국어 영역으로는 국어 지식 영역, 이해 영역, 표현 영역이 설정될 수 있으며,⁶⁾ 공무원이 지녀야 할 소양으로서의 국어 능력은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와 감상 능력, 문학사의 이해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에 내세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해나 표현 능력과 관련한 복합적인 능력을 묻는 문제 유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문학 지문을 통해 한국문학사에 대한 이해 및 지식을 묻거나 또는 은유나 환유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문학적 표현의

5)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는 졸고(2000)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6) 졸고(2000) 참고.

이해를 묻는 문항 등은 수준 높은 국어 시험 문제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은 공무원 국어 시험뿐 아니라 모든 국어 시험의 과제일 것이다. 김대행 외(1999)에서는 국어 평가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기본 영역으로 설정하되 실제 시험 과목으로 두세 영역을 서로 관련지어 통합하여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합 출제 유형의 개발은 문제 유형을 다양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문제 해결 능력은 단순히 사고 과정, 즉 논리적인 사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 수준의 지식을 밑바탕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교양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를 모두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직적격성 시험(PSAT)의 언어 논리 영역은 5지 선택형 40문항으로 비교적 다양한 문항을 통해 여러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반면에 7, 9급 공무원 국어 시험은 4지 선택형 20문항으로 다양한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어 시험을 토플이나 토익으로 대체하여 자격 시험화하는 방안과 마찬가지로 국어 시험도 국어능력 인증시험과 같은 시험으로 대체하여 자격 시험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국어능력 인증시험⁷⁾은 규범, 어휘, 문장력 등 국어 지식 영역, 이해, 표현 영역뿐 아니라 듣기 문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광범위하게 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 시험에서 일정한 급수 이상을 받으면 공무원의 언어 행위(법·규정 해석, 각종 문서 행위, 기관 내/대민 의사소통)에 대한 기본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7) 재단법인언어문화연구원(2002) 참고.

2. 공직적격성 시험(PSAT)의 언어 논리8)

1) 현황

공직적격성 시험(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은 과목별 지식 평가 위주의 1차 시험(헌법, 영어, 한국사)을 영역별 평가 방식으로 대체하여, 지식 정보화 시대에 관리자로서 지녀야 할 언어 논리 능력, 자료 해석 능력, 상황 판단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⁹⁾ 초급 관리자(5급 사무관)로서의 기본 소양과 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공직적격성 시험은 “새로운 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공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어 있다.¹⁰⁾

언어 논리 영역의 측정 대상은 일반적인 학습 능력의 하나인 의사소통능력, 지식을 종합, 통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어휘력이나 문법적 지식 측정은 제외한다.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보면 언어 논리 영역은 문장의 구성 및 이해 능력,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 추론 능력 등을 검정한다고 되어 있다.

2004년 출제된 언어 논리 영역의 문제 유형과 유형별 선정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 시험의 문제 유형 중 이해, 추론, 분석, 평가 등 이해력, 사고력이나 논리력과 관련한 문제 유형이 많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공직적격성 시험은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언어 논리, 자료해석, 영어, 한국사, 헌법)부터 시작하여 2005년 외무/행정고시(언어 논리, 자료해석, 영어, 한국사, 헌법), 2006년 외무/행정고시(언어 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어, 헌법)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갈 예정이다.

9) 우리나라 고등고시에 해당되는 일본의 I종 교양 시험은 일반지능과 일반지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지능 시험에서는 문장 이해(문장 파악, 문장 완성, 문장의 이해 및 감상)와 판단·수적 추리(수적 추리, 판단 추리, 공간 추리), 자료 해석(계산을 통한 자료 해석, 설문조사 자료 해석, 정보 유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10)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언어 논리 영역의 문제 유형〉

- 이해: 정보 확인, 개념 파악, 주제 파악, 쟁점 확인(17.5%)
- 추론: 주장 강화/약화, 결론 유도, 연역 추론, 가정 찾기(32.5%)
- 분석: 글의 도식화/배열, 빈칸 채우기, 논증 구조 분석, 무관(유관) 단락 찾기 (25%)
- 평가: 논리적 결함 찾기, 역설 진단 해결, 찬반 구분 짓기, 기타(15%)
- *상황 판단 10%¹¹⁾

문제 유형	문항 수	문제 유형	문항 수
정보 확인	2	빈칸 채우기	1
개념 파악	3	*논증 구조 분석	6
주제 파악	1		
쟁점 확인	1	무관/유관 단락 찾기	1
주장 강화/약화	3	*논리적 결함 찾기	2
결론 유도	4	*찬/반 구분 짓기	3
*연역 추론	3	기타	1
가정 찾기	3	상황판단	4
글의 도식화/배열	2	합계	40

〈표 1〉 유형별 선정 내역¹²⁾

언어 논리 영역에 사용된 지문은 모든 학문 분야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수능의 지문이 문학 비중이 높은 것과는 달리, 언어 논리에서 권장된 분야별 지문은 인문과학 30%, 사회과학 35%, 자연과학/공학 30%, 기타 5%이다. 이러한 분배는 초급관리자들이 적어도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 대학 교양 수준의 지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통된

11) 상황 판단 영역이 시험적으로 10% 출제되었다. 2005년부터는 따로 출제될 예정이다.
 12) *표는 국어 영역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논리 영역의 유형이다.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4년 실제 분야별 지문은 다음 표와 같은데 기타 지문의 비율이 높은 것은 추론과 관련된 문제를 인문으로 보지 않고 기타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인문과학 지문이 비교적 낮으며 문학 지문은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다.

분야	인문	사회	자연/공학	기타
문항 수	8(20%)	14(35%)	12(30%)	6(15%)

〈표〉 2004년 지문의 분야

2) 문제점과 개선 방안

언어 논리 영역의 문제점을 문제 유형과 출제된 지문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보겠다.

언어 논리 영역은 초급 관리자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및 지식 종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문장의 구성 및 이해 능력,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 추론 능력을 측정한다. 문장의 구성 및 이해 능력,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 추론 능력은 국어 능력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이 능력을 측정하는 언어 논리 영역의 문제 유형은 대학 수능의 문제 유형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고시를 치르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대학 졸업자로서 수능을 통해 어느 정도 국어 능력이 검증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어 논리 영역의 문제 유형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의 문제 유형과 비슷하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수능과 구별되는,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수준 높은 국어 능력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문제를 검토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준 높은 문제는 문제 유형이 아니라 수준 높은 지문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즉 언어 논리의 지문은 대학 졸업생이면 알아야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양 수준의 지문을 대상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문제의 난도를 높였다.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좀더 수준 높은 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을 마련하는 일은 초급 관리자에게 필요한 언어 논리 능력이 무엇인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언어 논리 영역에서 수능과 구별되는 문제 유형으로는 논리학 분야라 할 수 있는 연역 추론, 논증 구조 분석, 논리적 결함 찾기, 찬반 구분 짓기와 같은 유형이다. 이 유형들은 국어 교과 평가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유형인데, 이 문제 유형은 넓게 보면 대학의 교양 국어 수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¹³⁾ 이 유형의 문제들은 주로 논리학을 전공한 교수들에 의해 출제되고 있는데 논리학을 정식으로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교양적 수준에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을 출제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논리적 문제가 초급 관리자에게 필요한 사고 능력과 표현력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유형이라는 데에는 동의가 된 듯하나 이 분야의 문제 유형이 실제 공무원의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면 모양만 달리하는 암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짙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논리학 책에 등장하는 논리적 결함의 예로 문제를 구성하거나 철학사에 유명한 논증들을 지문으로 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는 특정 학문의 전공자들에게 유리한 문제가 되기 쉽다. 다음의 문제들은 이런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좋은 문제로 생각된다.

-연역 추론

〈문〉 어떤 살인 사건이 2003년 12월 23일 밤 11시에 한강 교수부지에서 발생했다. 범인은 한 명이며, 현장에서 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인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현장에 범인 외에 몇 명의 사람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3) 부분적으로 교양 국어에서 연역 추론이나 논리적 결함 찾기 등에 대해 다룬 바가 있다. 그러나 점차 이런 유형들이 고난도로 출제된다면 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따로 논리학을 교양으로서 공부해야 할 듯하다.

이 사건의 용의자 A, B, C, D, E가 있다. 아래에는 이들의 진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다섯 사람 중에 오직 두 명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는 두 명 중에 한 명이 범인이라면, 누가 살인범인가?

A: 나는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밤 11시에 서울역에 있었다.
B: 그날 밤 11시에 나는 A, C와 함께 있었다.
C: B는 그날 밤 11시에 A와 춘천에 있었다.
D: B의 진술은 참이다.
E: C는 그날 밤 11시에 나와 단둘이 함께 있었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 논증 구조 분석

〈문〉 다음의 글은 논증을 포함하고 있다. 이 논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A논증이 B논증보다 더 강하다."는 것은 A논증이 B논증보다 전체가 결론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새 TV를 사려고 한다. 그런데 내 친구 영주가 최근에 '가나' 회사에서 생산된 TV를 샀는데, 화질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영주가 산 '가나' 회사 제품의 TV를 사려고 한다. 그러면 화질이 뛰어난 TV를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영주 이외에 옆집과 내 삼촌 집도 영주가 산 제품과 동일한 TV를 최근에 구매했다. 그런데 그 TV들이 모두 뛰어난 화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위 글에 첨가한 새로운 논증은 원래 논증보다 더 강해지지도 약해지지도 않는다.

② 〈5명의 다른 친구들도 영주가 산 TV와 동일한 것을 구매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에서는 타사 제품 TV들도 역시 좋은 화질을 보여 준다.〉라는 사실을 위 글에 첨가한 새로운 논증은 원래 논증보다 더 강해진다.

*③ 〈영주의 TV는 6개월 전에 산 것인데, 지금 내가 사려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화면 튜브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모두 동일한 부속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위 글에 첨가한 새로운 논증은 원래 논증보다 더 약해지지 않는다.

④ <영주는 아파트의 공용 안테나 이외에도 고성능 안테나를 집에 설치하여 쓰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장만할 돈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의 공용 안테나에만 연결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위 글에 첨가한 새로운 논증은 원래 논증보다 더 강해진다.

⑤ <영주는 최근 호우로 TV 안테나 시설이 망가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나는 대형 TV 안테나 시설이 설치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위 글에 첨가한 새로운 논증은 원래 논증보다 더 약해진다.

-논리적 결합 찾기

<문> 다음의 추론들은 모두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가장 유사한 유형의 오류가 포함된 추론을 묶은 것은?

가. 저수지에서 떠 온 물 한 컵을 시험해 보았는데, 그것은 마셔도 안전한 물로 판정되었다. 당국은 그 저수지의 물 전부가 마셔도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 나는 이전에 빨간 옷을 입고서 수학 시험을 보았는데 만점을 받았다. 나는 내일 수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기 위하여 빨간 옷을 입을 것이다.

다. 철수는 우등상을 받았으므로 열심히 공부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영희에게 우등상을 주면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라. 아기들이 홍역을 앓을 때마다, 그들의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 또한 아기들의 체온이 높이 올라간다. 고열 때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다.

마. 부지런한 농부들은 모두 많은 소를 갖고 있다. 이제 이 마을의 게으른 농부들에게 소를 많이 주어 부지런한 농부가 되게 하자.

① 가. 라 ② 나. 다 ③ 나. 라 *④ 다. 마 ⑤ 라. 마

-찬반 구분 짓기

<문> 다음 중 'ㄱ. 반환하여야 한다'와 'ㄴ. 반환할 필요 없다'의 판단과 그 이유에 대한 연결이 논리적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 김은 박의 중개 의뢰를 받아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성사시켜 주고 박으로부터 1천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 후에 박은 일정액 이상의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김에게 법정 수수료율 0.2%에 해당하는 금액 2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법원을 중개업자 김이 초과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규정: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되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법령은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금지 규정에 위반된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그러한 금지행위의 결과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의 취지가 있다.

③ ㉠-법령의 해석이 이미 이루어진 거래의 안정성을 해하는 것이서는 안 된다.

④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가 효력이 없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난다.

⑤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령으로 사인 간의 거래의 효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매우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

다음은 지문의 문제이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경우 평가에 사용되는 지문은 문학과 비문학(생활문학)이 6:4 비율인데 반하여 언어 논리 영역에서는 대학의 교양 수준의 교과를 인문, 사회, 자연/공학, 기타로 나누어 30:35:35:5를 권장하고 있다. 인문에는 인류학, 언어학, 역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앞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1차 언어 논리 영역에 사용된 지문에는 문학 지문이 없다. 시험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문학 지문의 문제가 수능과 별 차이가 없어 문제은행에 거의 입고되지 못했다고 하며 의식적으로 문학 지문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¹⁴⁾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초

급 관리자로서 지녀야 할 문학적 소양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이다. 문학사나 문학 장르에 대한 지식은 언어 논리 영역의 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번 언어 논리 문제 선정 과정에서 문제은행에 입고된 문항은 399 문항으로 이 중 40문항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문항뿐 아니라 선정에서 제외된 문항의 지문은 좋은 글이라고 하기에는 사용된 어휘, 문장 구조나 글의 응집성 등에서 문제점이 많아 윤문 과정에서 큰 애를 먹었다. 앞으로 좋은 지문을 많이 제시해 주는 것도 국어 평가자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또 지문의 내용 면에서도 시험의 목적에 따라 공무원의 윤리나 공무원의 자질, 논리적으로 말하기 등과 관련된 지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Ⅲ 방송사 및 신문사의 국어 시험

방송사 및 신문사는 말과 글을 매개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직종보다 국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체나 공사 및 공단 등에서 영어 시험은 필수로 보지만 국어 시험은 보지 않는 것과 대비되는 일이다.

일명 언론고시라고 하는 방송사와 신문사의 채용 시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방송사의 경우는 대부분 국어를 1차 시험으로 보고 논술을 2차 시험으로 치르고 있다. 주요 방송사 중 SBS, MBC는 국어를 1차 필기시험의 공통 과목으로 보고 있으며, KBS는 다른 직종(사무, 기술직 등)은 제외하고 피디, 기자, 아나운서만 국어 시험을 본다. 논술은 SBS, MBC는 기자, 피디, 아나운서만 보며, KBS는 모든 직종

14) 문제 은행에 입고하는 것은 1, 2차 검토위원들의 검토를 통해서인데 이때의 검토위원은 국어나 논리학 전공자뿐 아니라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학자들과 사무관들이 팀이 되어 입고를 결정한다.

이 논술과 작문을 공통으로 본다.

신문사의 경우는 한겨레는 기자직의 경우 1차 필기 시험(국어, 영어, 일반지식)으로 국어를 보며, 2차로 논문, 작문을 보는데 한겨레의 국어 시험은 다른 어떤 신문사보다도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조선일보도 기자직은 1차 필기 시험(국어, 영어)으로 국어를 보며, 2차로 작문을 본다. 중앙일보는 기자직은 2001년부터 1차로 국어능력 인증시험을, 2차로 작문을 보고 있는데 국어능력 인증시험은 재단법인언어문화연구원에서 출제하는 것이다. 동아일보의 기자직은 1차로 영어, 논술, 작문을 본다.

여기서는 자료의 미확보로 논술과 작문 시험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1차로 실시되는 객관식 국어 시험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방송사의 국어 시험

1) 현황

방송사의 국어 시험은 피디, 기자, 아나운서를 대상으로 주로 치러 지는데, 맞춤법, 한자 시험, 고유어 어휘 등 방송 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상식(어문규범, 어휘, 문학론, 현대문, 문장문법론 등)을 묻는 시험이라고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점은 MBC의 시험 과목 '종합 교양'에 국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방송인의 교양으로서 꼭 알아야 하는 국어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방송사의 국어 시험의 목표이다.

방송사의 국어 시험은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인 논술 또는 작문을 통하여 논리적 사고력이나 표현력 등이 평가되기 때문에¹⁵⁾ 1차 국어 시

15) 논술이나 작문 문제는 직종과 관련한 내용이나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하는 것으로 2001년 KBS의 경우 80분 동안 B4 사이즈로 5매 정도의 분량을 요구하였다.

험의 출제 영역에서는 이해나 표현 영역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1차 국어 시험의 출제 영역은 어문 규범(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 문장부호,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 등), 어휘(순수 우리말, 틀리기 쉬운 우리말, 관용어, 혼동하기 쉬운 단어, 신문 한자어, 한자성어, 틀리기 쉬운 한자어, 교양한자 어휘, 한문장 등), 문학론(문학사, 문예비평, 문학이론, 수사법, 문예사조, 작품론, 작가론, 화제작품 등), 현대문(명문장, 명수필, 논설문, 평론, 세계문학작품), 문장문법론(방송문장 고치기, 문법 이론, 의미론 등) 등으로 공무원 임용 시험과는 달리 문학의 이해와 감상 영역이 부분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문학에 대한 소양을 방송인의 기본적인 소양으로 인정하고 있는 방송인들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역시 출제 영역과 문제 유형 측면에서 방송사의 국어 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다음은 자주 출제되는 방송사의 국어 문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문제집이나 인터넷에 떠다니는 방송사의 국어 시험 문제이다.

-어문 규범 문제

〈문〉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안다미를 씌우다 ② 안절부절못하다 ③ 붉그락푸르락 ④ 쌍동밥

-어휘 문제

〈문〉 다음 중 틀린 표현은?

- ① 새털같이 많은 날 ② 피나리 붓짐 ③ 괴발개발 ④ 쉬파리

-한자 문제

〈문〉 다음 중 한자 독음이 잘못된 것은?

- ① 敎唆 교사 ② 舊臘 구랍 ③ 旗幟 기적 ④ 鹿皮 녹피

-문장문법론

〈문〉 다음 괄호 안의 조사의 사용이 바른 것은?

- ① 윤동균 감독의 소망은 OB원년 우승 (멤버로서의) 자존심을 되살리는 것이다.
- ② 정부에서는 (장애인에) 403가구를 별도로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③ 옛날에 이 (집에서) 귀신 나오던 집이었다.
- ④ 헝가리는 동구권 (개방과) 즈음해 급증하는 관광객 유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어문 규범 문제나 어휘 문제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난도가 높은 지식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특히 어휘력 문제는 잘 쓰이지 않는 순수 우리말의 뜻을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한자어나 외래어 순화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사로서는 당연한 출제 영역이겠지만 입사 준비생들에게는 공부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궁벽진 순수 우리말에 대한 문제보다 방송인으로서 필요한 어휘력이나 문장 쓰기와 관련한 문제가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어문 규범 문제는 방송사가 국민들의 국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요한 출제 영역으로 평가된다.

방송사 국어 시험은 적은 문항 수로 이해 능력을 심도있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난점이 있다. KBS가 국어능력인증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이런 단편적 국어 문제에서 국어능력 전반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방송사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방송사의 국어 문제는 '상식 문제로서 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앞의 예시에서 본 것처럼 문제 유형이 단순하다. 출제 목적에 부합하는 유형이기는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다양한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출제 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다양한 문제 유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⁶⁾

16) 개인적인 경로로 입수한 올해 MBC의 국어 문제(25문항)는 출제 영역이 좀더 다양하다. 방송사의 시험 담당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이 문제는 국어능력 인증시험

2. 신문사의 국어 시험

1) 현황

방송사뿐 아니라 신문사도 시험 문제를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무원 시험과 달리 수험서도 많지 않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문사 중에 유일하게 문제가 공개되어 있는 것은 한겨레신문사인데 한겨레신문사의 국어 시험은 다른 신문사와 비교하여 어렵기로 소문이 나 있다.

한겨레신문사의 2000년도 국어 시험 문제는 총 30문항으로 먼저 문제에 사용된 지문을 보면 국내 현대소설(해방 이전), 외국 희곡, 이현보의 귀거래사, 국내 현대시, 논설문(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글), 문학 평론, 논설문(신문의 진실 보도에 대한 글) 등이다. 모든 장르가 국어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글로 지문이 특별히 어렵거나 낱설지 않다. 그리고 이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는 문학의 감상이나 이해에 국한되지 않고 문학사, 어휘력, 한자성어, 필자 견해 파악, 문장 끼워 넣기, 빈칸 채우기 등 다양한 문제 유형이 출제되고 있는데, 한겨레신문사의 채용 시험이 수능이나 언어 논리 시험과 구별되는 점은 수준 높은 국어 지식이 있어야만 문제 풀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음운 현상에 대한 이해, 띄어쓰기, 문장 쓰기, 한문 독해, 인용법 등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되어 국어 지식에 대한 평가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는 2001년부터 국어능력 인증시험으로 국어 시험을 대체하고 있는데 국어능력 인증시험의 출제는 재단법인언어문화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국어능력 인증시험은 다른 신문사의 국어 시험보다 문항 수가 많기 때문에(120문항) 지문의 종류가 다양하고(예술, 문화, 시사 등) 규범이나 어휘에 대한 평가 문항도 문항 배분이 더 많이 되

의 틀을 갖추고 있다. 즉 어문 규범, 어휘력, 어법, 고사성어와 속담과 같이 기본적인 국어 지식과 소주제문 찾기, 개요 이해, 글감 찾기, 글의 내용 이해하기, 제목 찾기, 논거 비판하기 등 이해와 표현의 영역을 두루 평가하고 있다.

어 세부적인 국어 영역까지 측정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조선일보의 국어 시험은 한문의 비중이 다른 신문사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2)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 마디로 한겨레신문사의 국어시험은 난도가 높은 국어 수능 시험이라 할 만하다. 몇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문> 밑줄 친 (ㄱ), (ㄴ)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을 고르시오.

- ① 인물의 운명을 지배하는 현실의 가혹성
- ② 민족의 현실에 무관심한 인물에 대한 풍자
- ③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인물의 인간 승리
- ④ 암울한 현실 속에 꺾박당하는 민중의 아픔과 소극적 대응 방식

<문> 윗글에 나오는 '효빈(效嬪)'이라는 말의 뜻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 ① 남의 장점을 보고 자신의 단점을 고치는 것
- ② 벼슬에서 물러나 사는 사람
- ③ 도연명이 벼슬에서 물러나 살 때 부르던 이름
- ④ 남의 단점을 잘못 배우는 것을 이르는 말

<문> 윗글로 보아 보도의 '진실'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 ① 공정성
- ② 정의감
- ③ 가치관
- ④ 이해 관계

출제에 사용된 지문을 보면 문학 지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이 신문과 관련된 글이다. 한문 문제도 30문제 중 한 문제가 출제된 것을 보면 한겨레신문사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사원은 국어국문학적

지식과 문학적 이해력이 아주 높은 사람임이 틀림없다. 신문사의 이러한 경향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공무원 시험에서는 언어의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고 기업체에서는 국어 문제가 겨우 상식 문제로 치러지는데 반해 신문사의 국어 시험은 고난도의 교양 시험으로 그 명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신문 기자들의 자격 요건 중에 고난도의 국어 능력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 중앙일보가 1차 국어 시험으로 재단법인언어문화연구원의 국어능력 인증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은 한겨레신문사의 문학에 치우친 시험 문제에서 탈피된, 좀더 다양한 분야의 지문 이해력과 여러 가지의 국어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채용을 위한 국어 시험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국어능력 인증시험은 총 120문항으로 듣기, 어휘, 어문 규정, 읽기, 쓰기 영역이 고루 출제되어 국어 능력을 고르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¹⁷⁾ 국어능력 인증시험의 출제 영역이나 문제 유형, 출제 지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국어능력 인증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국어 시험과 해마다 출제위원을 달리하여 출제되는 언론사의 국어 시험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평가 도구라고 생각한다.

IV. 삼성 직무 적성 검사의 언어 영역

예비 직장인들이 흥미하는 공사 및 공단의 채용 시험 중에 국어 시험을 보는 곳은 없고 다만 상식 시험에 문학 상식이 부분적으로 평가된다.¹⁸⁾

기업체도 대부분 일반상식, 영어, 논술을 실시하고 일반상식의 일부

17) 재단법인언어문화연구원(2001) 참고.

18) 공사 및 공단에서는 1차 시험으로 상식+논술(지역난방공사), 전공(한국석유공사), 영어+일반상식(도시철도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상식(농수산물공사), 논술(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치러지고 있다.

로 문학 지식이나 어학 지식이 평가되곤 한다. 재미있는 것은 삼성의 직무적성검사(SSAT: 언어, 수리, 추리, 공간지각, 시사상식, 상황판단)인데 국어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문제 유형이 다른 여느 국어 시험과 달라 눈에 띈다. 여기서는 삼성 직무 적성 검사의 언어 영역의 문제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국어 능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른 국어 시험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한다.

삼성은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5년 하반기 사원 공채부터 학력 제한을 철폐하고 전공, 영어 및 제2 외국어 등의 입사 필기시험을 폐지하였다. 삼성 직무 적성 검사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간판보다는 능력, 획일보다는 개성이 존중되는 열린 채용의 실천을 목표로 개발된 시험이라고 한다.

삼성 직무 적성 검사는 기초 능력 검사(200문항)와 직무 능력 검사(100문항)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초 능력 검사에서는 언어력, 수리력, 추리력, 공간 지각력, 지각 속도력 등을 통해 기초 지적 능력을 평가하고, 직무 능력 검사에서는 업무 능력, 대인 관계 능력, 상식 능력 등을 평가한다. 기초 능력 검사의 언어력은 총 40문항으로 어휘 의미, 동의어, 반대어, 한자 의미, 고사성어, 어휘 사용, 속담·격언, 문장 순서대로 배열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력 외에도 언어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유형으로 추리력의 문장 추리가 있는데, 언어를 통한 추리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 문항은 PSAT의 언어 논리 영역의 추론과 비슷한 유형이다.

기초 능력 검사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처럼 문제 유형은 긴 글을 읽고 이해한 후 문제를 푸는 유형은 없고, 주로 어휘력과 문장 구성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퀴즈 형식으로 풀어 나가게끔 되어 있다.

시험에 대한 평가는 시험이 시험의 원래 목표에 부합하면 좋은 시험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대학 입시의 수능 문제는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뽑기 위한 시험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를 받으

면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삼성의 직무 적성 검사는 삼성에 입사하고자 하는 취업생을 대상으로 기초 능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면접 단계에서 프리젠테이션 면접, 집단 토론, 역할 연기 등의 심층적인 면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휘력과 문장 구성력이 주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

-동의어 찾기

(문) 후견(後見)

- ① 원조(援助) ②조력(助力) ③후임(後任) *④보좌(補佐)

-반의어 찾기

(문) 수뇌

- ① 후뇌 ② 간부 *③ 졸병 ④ 친구

-문장 배열

(문)

- 1) 현재 이슬람교의 신도는 50개국에 12억에 달한다.
- 2) 대부분은 중동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 3)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4)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창시한 종교로 알려져 있다.

- *① 4123 ② 4312 ③ 1432 ④ 2341

-문장 추리

(문) 원형 탁자에 A, B, C, D, E, F 6명이 앉아서 토론을 한다. A의 한사람 건너 뛰어 옆에는 B가 앉아 있고, C의 맞은편에는 F가 있다. E의 오른쪽에 한 사람을 건너 뛰면 D가 앉아 있다.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은?

- ① B의 맞은편에는 E일 수 있다. ② A의 맞은편에는 E일 수 있다.
 ③ B의 옆에는 D일 수 있다. *④ A의 맞은편에는 C일 수 있다.

언어 능력 중 어휘력은 글을 쓰거나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 능력임에

분명하고 문장 배열하기 역시 글의 구성이나 말하기와 관련하여 기초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삼성 직무 적성 검사는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바른 문장 쓰거나 규범, 언어 예절이 제외되고, 이해력이나 표현력과 관련하여 출제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만 이 시험이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휘력과 문장 구성력에 집중되어 있는 현 시험은 기초 능력 평가 시험으로 실용적이며 창의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V. 맺음말

이제까지 채용을 위한 시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채용 시험은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과 달리 다른 수험생과의 변별도를 중요시하는 시험이다. 또한 채용 시험은 채용 후에 필요한 능력을 미리 평가하는 측면도 갖고 있다.

공무원 채용 시험은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어문 규범, 어휘, 문장력, 한자어 등 국어의 실용적 지식 부문과 표현, 이해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현재 4지 선택형 20문항은 한계가 분명하다. 또한 5급 공채 시험에서 언어 논리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용적인 국어 지식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부족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방송사의 국어 시험은 현재 상식 또는 교양 문제로 출제되고 있어 표현력이나 이해력을 평가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 물론 논술이나 작문을 통하여 표현력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방송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다양한 국어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국어능력 인증시험을 자격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언론사 국어 시험 중에는 한겨레와 중앙일보의 국어 시험을 살펴보았는데 한겨레의 경우 국어 시험의 지문이 국어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문학이나 논설문에 한정되는 것은 언어의 다양한 측면을 생각지 않은 좁은 시야라 생각된다. 신문의

기사가 국어 교과와 내용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다양한 분야의 지문을 통한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한편 삼성의 직무 적성 검사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 영역은 기초 능력 평가 시험으로 퀴즈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수험자의 정확한 언어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채용과 관련한 국어 시험은 기본적으로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맞는 출제 영역을 선정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을 개발하여 그 문제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까지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채용 국어 시험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아직까지 국어 평가라는 연구 분야는 척박한 상태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여러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문제를 제작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학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본 논문은 2004. 6. 29. 투고되었으며, 2004. 7. 14. 심사가 시작되어 2004. 7. 26.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기남 방송통신학원연구회(2004), 『방송국 입사 종합교양』, 성안당.
- 김대행(1997), “영국의 문학교육: 평가를 통한 언어와 문학의 투시”, 『국어교육연구』 제4집,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 김대행·김광해·윤여탁(1999), “국어 능력 측정 방안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6집,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 노명완·정혜승·옥현진(2003), 『창조적 지식기반사회와 국어과 교육』, 박이정.
- 박영목(1996), 『국어이해론』, 법인문화사.
- 양명희(2002), 『공무원 국어 시험을 위한 제안』, 국립국어연구원.
- 재단법인언어문화연구원(2002), 『제1회 국어능력인증시험 결과 보고서』.
- 최미숙(1998), “국어교육에서의 평가”, 『국어교육연구』 제5집,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 한국고사회(2004), 『삼성 직무 적성 검사』.
- 매스컴잡닷컴 홈페이지 <http://www.masscomjob.com>
-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sc.go.kr/03_policy/policy02_01.asp

〈초록〉

채용 국어 시험의 현황과 개선 방안

양명희

채용을 위한 국어 시험으로 공무원 시험, 언론사 시험, 삼성의 직무 적성 검사를 살펴보았다.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또는 국어교육과 교수들의 손에 의해 주로 출제되는 이들 시험은 이제까지 별 반성 없이 오랫동안의 출제 관행을 답습한 결과 공무원 시험에서의 국어 과목 폐지라는 논란을 낳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어 교과는 모든 인간의 의사소통 행위와 창조적 행위의 매개가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국어 시험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채용과 관련한 국어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시험의 목적에 맞는 출제 영역의 선정과 문제 유형의 개발, 질 좋은 출제 지문의 확보 등이다. 모든 채용과 관련한 시험이 같은 출제 영역과 문제 유형을 보일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시험이란 시험의 목적에 맞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까지의 공무원 국어 시험이나 언론사의 국어 시험의 출제 영역이나 문제 유형 중에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다.

앞으로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학과에서는 우리 사회에 중추라 할 수 있는 일반 사회에서의 채용 국어 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의 중요성과 정당성, 타당성 등을 입증하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과 시험의 목적에 맞는 출제 영역에 대한 연구와 문제 유형의 개발에 좀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핵심어】 채용 국어 시험, 공무원 임용시험, 언론사 국어 시험, 출제 영역, 문제 유형

〈Abstract〉

On the present conditions and the reform measures of the Korean examination for services and the media

Yang, Myung-hee

This essay deals with the Korean examination for services and the media undergone by administrative branches, the media(broadcast stations and newspaper companies) and the Samsung company. The questions for the Korean examination for services and the media were made by professors with a major in Korean linguistics, Korean literature or Korean education. The questions have several problems including the range of possible questions, the patterns of questions and the quoted texts.

The Korean examination for services should assist service providers to match their services to the needs of the community. However, until now, the Korean examination for services and the media has not met this goal. The questions undergone by administrative branches should test the Korean ability for presentation one's opinions and comprehension all the text which is relevant to public services. The questions undergone by the media should test the Korean ability for presentation one's opinions and comprehension all the text which is relevant to broadcasting and newspapers. SSAT(Sam Sung Attitude Test) undergone by the Samsung company includes some quizzes about Korean abilities which are useful to test vocabulary knowledge and skills of constructing sentences.

It is important to train people who make the questions for the Korean examination for services and the media. We must focus on the importance and the propriety of the Korean examination for services and the media.

[key words] the Korean examination for services and the media, the range of possible questions, the patterns of questions.